

산업계, 재택·출근 병행 속 게임업계 ‘전면출근’ 진통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3사 이달부터 ‘전면 근무제’ 도입 원격근무에 개발 늦고 매출↓ “급한 회의 많아… 출근이 당연” “이미 집에 일하는 환경 다 구축 얼굴 맞대고 할 일 없어” 반발도



넷마블 신사옥 지타워 전경. /넷마블



넥슨 사옥 전경. /넥슨



엔씨 판교 R&D 센터 사옥 전경. /엔씨

코로나19로 산업계 전반이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게임업계는 전면 출근을 적용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100% 출근 정책을 도입 하고 나서면서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오늘부터 전면 근무제를 도입했다.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이미 지난 2일부터 전 직원이 출근중이다. 스마일게이트, 펠어비스 등 중견게임사들도 앞서 수순을 밟고 있다.

코로나19안정화에 따라 일상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격, 메타버스, 재택 등 하이브리드 근무제에서 전면 사무실 출근 근무 방식으로 전환한 것.

반면, 네이버 카카오같은 빅테크 기업은 원격근무가 우선인 새로운 형태의 근무제를 도입했다.

네이버는 직원들이 스스로 출근을 선택할 수 있는 커넥티드 워크 제도를 도입했고 카카오는 메타버스 근무제를 선보였다. 해당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이같은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입사한 직원들은 재택 근무가 익숙하다. 전면 출근하라는 지침이 떨어졌다면 힘들어했을 것. 이같은 하이브리드 근무제가 오히려 일 집중에 더욱 효율적”이라며 “IT업계 대부분이 개발자 모시기에만 급급한게 아니라 인력 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회사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수 있다. 하이브리드 근무 자체를 회사 복지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게임업계의 전면근무 도입이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는 신작부재에서 이어진 지난해 부진한 실적이 전 직원 출근에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 조직위원회가 전 세계 개발자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항 중 44%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근무 등으로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을 겪었다고 답했다.

여기에 넥슨, 넷마블, 위메이드, 펠어비스 등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10%부터

최대 80%까지 매출이 급감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채용됐는데 재택 근무로 인해 회사에서 근무한적이 거의없다. 부서원 회의 말고는..”이라며 “이미 일하는 환경을 집에 다 구축해놨는데, 100% 회사 출근이라니, 당황스럽다. 요즘 추세에는 오히려 재택을 조장하고 회사 규모를 줄이는 효율성을 택하지 않나. 게임업계 특성상 굳이 얼굴 맞대고 할 일은 없는데, 굳이 회사를 나갈 이유를 모르겠다. 신작 개발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신작은 무려 많으면 10년 전부터 준비한다. 당장 출근을 한다고 빠르게 도출해야하는 결과물은 없을 뿐더러, 나온다고 해도 집에서 화상이나 원격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채용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게임사 인사팀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채용되기 전 면접에서 재택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던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놓고 찬반이 갈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출근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전과 같은 출근을 하라는데 그게 왜 불만인지 모르겠다”며 “실제로 업계 특성상 빠르게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급하게 회의를 열때가 많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긴 호흡의 결과물을 다루는 업계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실제 사무실 출근을 필요로 하는 직원도 많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곡물값 급등… 식품제조 中企 83% ‘경영악화’

중기중앙회, 213곳 대상 실태조사 ‘매우악화’ 38%, ‘다소악화’ 45% 기업 74% 영업이익 줄어들 것 전망 애로사항 46% ‘제품가 인상 어려움’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등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최근의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제품값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산 곡물 가격이 더 높아 수입산을 대체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식품제조 중소기업 213곳을 대상으로 ‘수입농산물가 급등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해 7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2.6%가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매우악화 37.6% + 다소악화 45.1%)됐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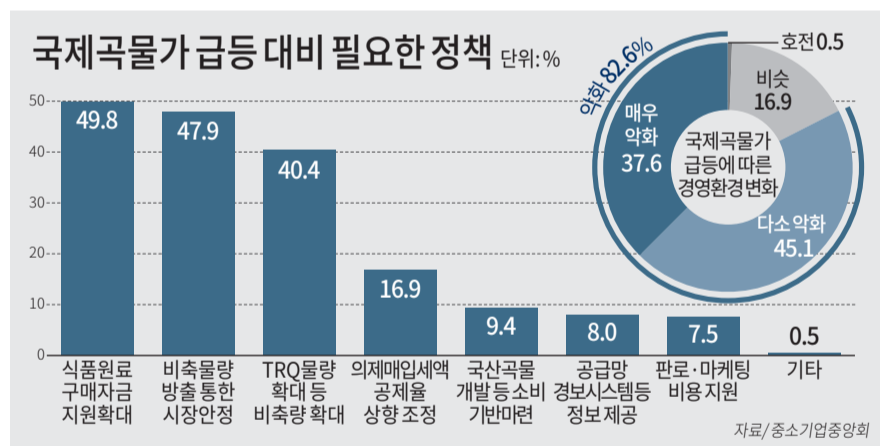
‘호전됐다’는 답변은 0.5%에 그쳤다. ‘비슷하다’는 16.9%였다.

또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73.7%의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익 감소’의 경우 20% 이상이 26.3%, 10~20% 미만 23.9%, 10% 미만 23.5%였다. 이외에 ‘변동없음’은 21.1%, ‘증가’는 5.2%였다.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른 원료값 증가율은 ‘10% 이상 20% 미만’이란 응답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 이상 30% 미만’도 23%로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이처럼 곡물가 급등에



다른 경영상 가장 큰 애로에 대해선 ▲원재료 가격상승에 비해 제품이 인상 어려움(46%) ▲생산물가(인건비, 자재 등) 동반상승으로 수익성 악화(41.8%) ▲원재료 공급 부족으로 수급 차질(11.3%)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품가격 인상에는 대체적으로 미온적인 모습이다.

‘당장 계획이 없으나, 단가급등 지속 시 인상 고려’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은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 ‘원가증가분 만큼 인상할 계획’은 26.8%였다. ‘원가증가분보다 적은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도 23.9%에 달했다. ‘특별한 인상계획이 없다’는 13.6%였다.

인상한다면 인상폭은 ‘10% 이상 20% 미만’이 39.1%로 가장 높았다. 인상계획이 없는 이유는 ‘타사 대비 경쟁력 하락 우려’라는 답변이 절반이 넘는 58.6%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수입곡물 수급전망에 대해선 71.4%가 ‘원활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국산곡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국제 곡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 전체의 49.8%가 ‘식품원료구매자금 지원확대’를 꼽았다. 이어 ▲조기공매 등 비축물량 방출을 통한 시장안정(47.9%) ▲TRQ물량 확대 등 고정운용 및 비축량 확대(40.4%)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필요(16.9%) 순으로 많았다.

‘조기 공매’란 TRQ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수입권공매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TRQ물량’은 수입물량 가운데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일정물량을 의미한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치솟는 원재료 가격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식품제조업체의 고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식품원료구매자금 지원요건 완화 및 농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식품중소제조업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TRQ물량 확대 및 비축물량 방출을 통한 원자재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대우조선해양, 24조 대규모 LNG선 발주

17만4000㎥급 4척… 2025년 인도

대우조선해양이 24조원대에 이르는 카타르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대량 발주 프로젝트의 출발을 끊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에이치라인해운(컨소시엄 리더), 팬오션, SK해운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으로부터 17만4000㎥급 LNG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총 1조734억원으로, 이 선박들은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5년 1분기까지 선주측에 인도돼 카타르 에너지의 노스필드 확장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17만

4000㎥급 대형 LNG운반선으로 저압 이중연료추진엔진(ME-GA)과 재액화 설비가 탑재돼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수주한 선박 22척은 모두 이중연료추진선박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선박 운영을 위해 회사의 스마트십 솔루션인 DS4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는 연간 LNG생산량을 기존 7700만톤에서 1억 2600만톤으로 확대하는 증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일환으로 지난 2020년 카타르에너지는 대우조선해양과 LNG운반선 선포 예약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중, LNG추진선 등 미래기술 공개

그리스 ‘포시도니아 2022’ 참가

현대중공업그룹이 글로벌 조선해양박람회 참가해 넷제로(Net Zero) 시대에 맞춘 친환경 미래 기술을 선보였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일렉트릭 등 5개 계열사가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포시도니아 2022’에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박람회에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LNG 추진선, LNG 버킹링선 등 친환경 선박을 전시하고, 메탄올, 에탄 등 선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차세대 저탄소

연료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7일과 8일 양일간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알릴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친환경 선박인 LNG 추진선부터 메탄올, 에탄 등 미래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연료 추진선까지 폭넓은 친환경 선박 건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 서비스 전문 회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이산화탄소 저감 및 LNG-FSRU(부유식 저장·재기화설비) 개조 기술을 선보인다. 노후 LNG 운반선을 해상 LNG터미널인 FSRU로 개조하는 솔루션은 증가하는 LNG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주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